

“환자를 구하라”... 코로나 전선에 온 몸 던지는 醫人들

〈의인〉

코로나19 확산 속 빛나는 광주·전남 시민의식

의사 3명 등 광주 1차 의료지원단 오늘 대구·경북으로 출발
보건환경연구원·음압병실·보건소 간호사들 한달째 사투
방역담당공무원·119구급대원들 방호복 입고 쪽잠자며 업무

전국이 ‘코로나19’에 갇히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려는 시민 의식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6·16·22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000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광주·전남지역민은 물론 온 국민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가 폭증한 대구·경북의 주민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하루 수백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려는 각계의 움직임이 힘을 발휘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단 공포 상태를 몰아내고 있다.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온 몸을 던지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밀려드는 환자 채크하느라 물 마실 시간도 없는 보건소 직원들, 24시간 코로나 검체 분석에 매달리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은 먹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줄여 가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광주지역 의사들은 1차로 28일 ‘코로나 19’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으로 출발한다. 1차 의료지원단은 서정성 광주 남구의사회장 등 3명으로, 이들은 1주에서 한달 가량 진료에 동참한다. 또한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0만 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서정성 남구의사회장은 대구 선별 진료소에서 밤과 심야시간대에 부족한 일손을 거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들은 코로나19 검체 검사 의뢰가 주로 밤 늦은 시간과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달째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다. 밀폐실에서 검사 한 건은 숨쉬기 힘든 고산시간대에 마스크를 쓴 채 1시간 동안 일을 하는 노동과 비슷해 다

리가 풀릴 정도라고 한다.

조선대 병원 75병동 음압병실을 담당하는 25명의 간호사들도 한달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2시간여 동안 방호복을 입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땀이 줄줄 흐르는 등 체력소모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방호복을 폐기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조차 만나지 못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방역담당 공무원 오광석(56)씨는 매일 확진자의 주거지·동선·격리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곳을 오전 8시부터 방역한다. 방역 대상이 늘고 있어 퇴근은 밤 11시면 빠른 편, 대부분 자정이 돼서야 귀가한다.

광주남부소방서 119안전센터 오경렬(33) 구급대원은 쌓이는 피로는 차치하더라도 현장 출동시 감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 의심 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미리 방호복을 착용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무작정 실신이나 발열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신고가 늘고 있어 그만큼 위험 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환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방호복을 입을 수도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해 자칫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청 보건소 서기정(여·49) 간호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 증상 체크와 검체 채취를 담당하고, 조금이라도 환자가 줄어들면 곧바로 콜센터에서 환자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의심환자가 물리면 점심을 먹을 짬이 없기 때문에 시간나면 간단한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 됐다. 방호복을 입은 채 일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는 날도 있다고 한다.

서기정 간호사는 “방호복을 착용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불편한데, 막무가내로 찾아오셔서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코로나 검사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다”면서 “감염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진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6일 오후 10시께 나주 이창소방서 119 구급대원들이 발열과 기흉통증을 느낀 환자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신천지 신도 290명 “증상 있다”

총 3만6477명 코로나19 감염 여부 1차 전파조사
미확인 692명 추가조사 ... 교육생 1만여명 명단은 빠져

전국 확진자 1766명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1차 전파조사에 나서 290여명의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2만2880명과 1만3597명 등 총 3만6477명의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1차 전파조사를 했다. 교육생인 예비신도 1만여명(광주 5378명, 전남 4118명)은 신천지측의 명단 제출 거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이날 신천지교회에 추가 요청해 교육생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교육생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날 본청과 시 산하 기관 등 소속 공무원 1400여명을 동원해 전화 문진을 했으며, 신천지 신도 230여명으로부터 발열 또는 기침, 호흡기 증상 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남도도 22개 시·군과 협력해 전화 문진을 했는데, 신도 60명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시·도는 곧바로 보건소 등과 연계해 유증상자들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시·도는 다만 유증상자로 분류된 신도 대부분이 일상적 수준의 미미한 감기증세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인데다, 이미 자가격리 중인 사례도 많아 미리 확진 여부를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 불일치, 군입대 등으로 미확인된 신도는 전남 692명 등 극소수로, 시·도는 경찰과 협력해 추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이날 호흡기 증상 등을 밝힌 신도에 대해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가격리하는 등 관리 중”이라며 “이들은 일상적 수준의 유증상자들로, 시·도민에게서 미리 격정하거나 불안해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하루에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하루에만 총 505명 추가돼 총 176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대구·경북 환자는 139명(대구 115명·경북 24명)이다. 그 외 지역 신규환자는 경기 7명, 경남 7명, 서울 1명, 충남 5명, 울산 5명, 부산 3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북 1명 등이

다. 광주·전남은 지난 23일 이후 4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총 1477명(대구 1132명·경북 345명)으로 늘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도 1명이 늘어 총 13명이 됐다. 이날 24·65만 환자가 격리에서 해제돼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도 전국적으로 6만60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를 제외한 검사 인원은 6만4886명이며 이 가운데 3만9318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만556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지정 후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

1999.10. 헌법재판소 판결

2020.7.1.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자랑 2부제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법

이르면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3개월간 산책로 등산로 등 곳곳이 접근 제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공원

광주시가 만듭니다.

-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공원 내 아파트 면적비율 (광주시 비율 9.7%, 전국 지자체 평균 비율 21.3%)
-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협약이행 보증금 추가 담보 설정
- 전국에서 최초로 초과수익 →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
- 전국 최초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거버넌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 구성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지켜주는 도시공원

(광주시 제외 전국 지자체 평균 78.7%)

광주시 공원확보율 90.3%

지자체	공원확보율 (%)
광주	90.3%
부산	85.7%
대구	81.9%
대전	78.9%
강원	76.1%
경기	75.5%
인천	74.0%
충남	72.0%

우리동네 공원, 시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